

◎ Public Libraries in 1973

## 公共圖書館의 回顧와 展望

李 承 周

(國立中央圖書館)

1973년의 우리 나라 公共圖書館界의 回顧 請託을 받았다. 一年이란 期間은 짧기는 하지만 오늘 날과 같은 多事多難의 事件史 속에서 1年은 오히려 이들을 整理하여 意味를 가지고 歷史를 내다 보기에는 오히려 길다. 그것은 그 많은 일과 事件들이 하나 하나 歷史的 意味를 가지고 國家 및 社會에 주는 影響이 클 뿐만 아니라 現代에 있어서 歷史性은 지난 날의 時代性에서 보다 오히려 Current性 속에서 찾아지며 이에 爲主되어 있기 까닭이다. 旺盛하게 發展하는 社會일수록 일과 事件은 많다. 歷史가 긴 것보다는 오히려 歷史的 事實의 蓄積이 많은 것이 더 意味가 있다.

오늘 날 우리 나라는 祖國의 近代化를 이룩하려는 大役事를 하는 渦中, 即 일과 事件속에 우리는 處하여 있다. 이와 같은 狀況속에서 지난 날은 勿論. 今年 1973년의 우리 나라 公共圖書館界를 돌아다 볼 때 쓸쓸함과 空虛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지난 一年間(지난날이 다 그랬지만)이 「動中動」, 「靜中動」의 肯定的 다이내믹한 해가 아니라 정말로 불쌍하도록 조용한 「停滯」와 「沈滯」, 「無氣力」의 그것이었다. 우리는 公共圖書館 1973年에서 쓸쓸함과 空虛를 느끼고 宿命的 啼念인 「도서관 쟁이할 수 있어」以前에 歷史的 罪意識을 痛感하지 않으면 안된다. 더우기 今年은 祖國近代化 課業에 있어서 維新第1次年度이다. 그 1次年度에 公共圖書館界는 무엇이 달라지고 또 公共圖書館은 무엇을 이룩했는가? 생각해 볼 때 對答할 말이 없다. 이것이 1973년의 우리 나라 公共圖書館을 回顧하는 一般的인 結論이며, 國家와 社會에 對한 歷史的 罪意識을 느끼어야 한다는 狀況의 根據이기도 하다.

무엇 어떠한 事實을 評價, 議論함에는 그 事實들에 對한 精密性과 精確性에 立脚한 審査分折의 科學的인 方法과 事實에 對한 正確한 狀況性에 立脚한 意味와 合理性을 爲主로 하는 一般的인 方法이 있겠으나 資料의 未備는 勿論 本稿가 回顧인 까닭에 몇가지 側面에 걸치어 살펴볼까 한다. 都大體 우리나라의 公共圖書館을 評價함에 있어 그 基準은 어디다 두어야 할 것인가

는 問題는 恒常 重要한 問題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우리나라 公共圖書館의 現住所는 어디에 있는가? 와 또 그것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우리나라 公共圖書館의 現想과 目標에 關連된 問題이기 때문이다. 筆者는 우리나라의 圖書館界가 發展을 하였다느니 하는 말을 종종 들으나 恒常 그것이 어디다 根據한 것인지를 疑訝하게 생각해온 사람의 하나이다.

위선 韓國圖書館協會調查의 記錄에 나타난 數字를 中心으로 國內 公共圖書館의 狀況의 變動을 살펴보고 1973년의 主要-issue와 이벤트를 中心으로 回顧해 보려한다. 먼저 國立圖書館의 境遇를 보면 司書專門職員이 1972년에 46명이 43명으로 줄고 人員總數는 1972년의 99名에서 136名으로 增加를 보여주고 있고 藏書數의 경우 1972年 99,232,000권에서 107,303,000권으로 增加한데 反하여 年增冊數는 前年增加 28,399冊의 半未滿인 11,702冊의 增加量을 보여 주고 서비스面은 利用者數가 前年の 461,793名 보다 增 395,720名에 利用冊數는 館內閱覽貸出이 前年の 280,819冊보다 約 27,000이 많은 308,313冊을 貸出した 것을 보면 길이와 精度있는 資料의 利用現象을 나타내고 있어 閱覽者는 줄었지만 圖書館利用이 增된 方向에로의 進一步 傾向이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다만 館外貸出面에 있어서 前年の 6,769冊에서 減진 6,153冊을 示顯하고 있는것은 館外貸出條件 即 서비스 條件이 까다러워 졌든가 아니면 國立圖書館이 中心이 된 相互貸借에 依한 貸出이 줄었든가 등 몇가지가 要因이 있지 않나 생각되어진다. 다른 한편 國會圖書館의 경우를 보면 오랫동안 國會圖書館長으로서 括目할 業績을 남기고 圖書館協會長 等を 歷任하면서 韓國圖書館에서 애쓰신 姜周鎭氏가 辭任하고 住年에 國會文公委員長으로 계시던 金鍾浩氏께서 館長으로 就任하였으며 司書局長도 更送되어 李喆珪氏가 任命되고 司書專門職으로서의 우리나라에서 最初로 圖書館의 局長이 되었다는 면에서 한때 그 분에 對한 昇進에 祝賀와 健康을 바라는 얘기로 藉藉하였으려니와 1973年에 있었던 기쁜 朗報의 하나 이었다. 이와같이 一大變

動을 이루는 가운데 統計는 72년에 122名の 專門職이 73년에 42名으로 줄면서 總人員도 지난해 209名에서 180名으로 줄었다. 資料增加面을 보면 後年度자료豫算 21,236,000원 보다 約 280만원이 增額된 2,400만원으로 前年度 增加數 約 13,778 冊보다 約 2,400冊 많은 15,192圓의 增加를 示顯하고 있으며 總豫算은 2億 3千만원으로 堅實性을 보여주고 있음은 어려운 우리나라 圖書館界에서 希望의인 事實이 아닐 수 없다. 特히

定期刊行物 國內 2,861 外國 1,728 等 都合 4,585種을 收集하고 있음은 國際級으로 마음든든한 바 있다.

다음은 一般公共圖書館 싸이드를 보면 1972年度 統計엔 69個가 나타난 것이 1973年 統計엔 68個로 나타나고 68個의 圖書館價中 19個의 圖書館이 統計調査票를 提出치 않아 前年度의 數値를 그대로 使用하는 等 統計價値에 問題가 있으나 그러므로 圖書館의 狀況을 살피면 아래 표와 같다.

1972~3의 公共圖書館現狀表

| 年度別  | 館數   |        | 職 員    |     |     | 藏 書 數   |         |         | 年增加<br>回 數 | 年 間<br>利 用 者 | 年 間 利 用 回 數 |           |           |
|------|------|--------|--------|-----|-----|---------|---------|---------|------------|--------------|-------------|-----------|-----------|
|      | 座 席  | 座 席    | 專 門 職  | 其 他 | 計   | 東 書     | 西 書     | 計       |            |              | 級 內         | 級 外       | 計         |
|      | 1972 | 70     | 17,013 | 151 | 425 | 576     | 620,842 | 62,471  | 683,316    | 76,587       | 3,521,389   | 1,232,448 | 154,533   |
| 1973 | 69   | 17,989 | 114    | 492 | 606 | 690,065 | 63,644  | 755,066 | 90,505     | 5,434,792    | 1,669,102   | 570,712   | 2,239,814 |

위표를 中心해서 볼 때 專門職은 151名에서 114名으로 주는 가운데 576名에서 606名으로 增加를 보이고, 藏書數도 68만3천에서 75만5천으로 7만책의 增加를 보이면서 洋書도 約 1,200冊의 增加를 보여준다. 이것은 全人口 一人當 冊數로 볼때 1972年の 0.0222 冊에서 0.024冊으로 0.002冊의 增加에 不過하다. 이는 1年에 1人當 1.2冊이 넘는 西歐에 크게 뒤진다. 또 年間 利用者數는 1972년에 3백52만名에서 5백44만名으로 純增 54%가 增加하였다. 이것은 圖書館利用者數는 急激히 上昇하는데 冊의 供給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現象을 意味한다. 利用者들이 要求하는 狀況은 年間冊의 利用冊數에서도 如實하다. 1972년에 1백38만7천冊에 對하여 1973년에 2백24만冊이 貸出되 純增 61%의 增加이다. 그 構造面에서 재미 있는것은 館外貸出이 1972년에 15만4천冊에서 1973년엔 57만冊으로 3倍 以上이나 增加하였다는 것으로 公共圖書館이 오는 손님만 받는데 머물지 않고 積極的인 姿勢로 地域社會에 파고 들어 移動文庫의 活潑한 움직임에 그 原因이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새마을運動에 있어 公共圖書館의 參與意慾으로 評價되어야 한다. 現在 우리나라에는 統計에 따르면 71個가 있다. 이들은 모두가 市區郡單位의 圖書館들이다. 우리나라엔 約 230個의 市區郡의 行政區域單位가 있다. 萬一 우리나라의 이 行政區域單位가 圖書館奉仕區域으로서 合理的이라면 230個가 있어야 한다. 圖書館의 冊은 萬人을 爲한 것이다. (Books are for all) 라는 理想을 實踐하는 據點으로서 본다면 그것은 國民個人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고 또 圖書館의 機能的 距離限界內에 있었어야 하고 그것들은 合理的으로 分布되어야 한다는 事實들을 充足시킬 수 있어야 한다. 現在 文教部에서 하고 있다는 公共圖書館設置 5個年計劃인가 될가는 이 一郡一圖書館을 目標로 한 計劃이다. 만일 郡單位가 公共圖書館의 機能을 發

揮할 수 있는 適正單位라던 이것이 다 된 뒤에나 우리나라 公共圖書館의 本質的인 發展問題는 學論되어야 할 問題들이다. 왜냐하면 一郡一圖書館을 核心으로 한 우리나라의 圖書館奉仕制度의 概念에 있어서 이것은 그 基盤助成에 不過한 것이기 때문이다. 實際上으로 郡單位圖書館은 우리나라 圖書館奉仕體制의 基幹이 되어야 할것인가는 異論의 餘地가 充分히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 아직 이에 對한 아무런 研究가 없고 또 文教部의 公共圖書館設置 5個年計劃도 郡單位로 圖書館을 다 짓자 하는 目的일 뿐이지 이것이 圖書館의 National plan과 關連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公共圖書館의 發祥地인 西歐의인 概念의 社會學的 側面에서 본다면 그 「Public」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面單位가 適切할지도 모른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나라의 公共圖書館의 狀況을 論할 段階가 아니고 그 基礎段階로써 政府는 國家의 公共圖書館計劃(Blue prints)을 作成이를 實行하여야 할 段階인 것이다. 이를 爲하여 政府는 그 計劃委員會를 두고 圖書館關係 團體들로부터 意見과 代案들을 받아 參考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일은 時急한 일이다. 더우기 第三次經濟開發5個年計劃의 內容이 우리나라의 重化學工業의 育成과 새마을計劃을 骨格으로한 產業高度化政策과 社會開發政策을 核心으로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두가지의 國家政策에 있어서 圖書館은 核心事業으로 包含되어야 하고 必須的인 問題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產業高度化를 爲하여는 보다 많은 새로운 情報를 要請하고 이의 提供處로서 우리는 自處하고 確信하기 까닭이다. 그리고 새計劃에 있어서도 文化的 要素 없이는 「새마을」은 不可能하다. 近代化란 바로 「所得增大」와 「文化社會」 두가지 概念의 結合體로서 이를 表裏一體로 推進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不幸하게도 우리들의 새마을計劃을 一瞥할때 그것은 所得增大一邊의 質적발이 計劃

을 꺾지 못하고 있다. 새마을計劃의 內容은 마을사람의 自助와 協同精神에 바탕해서 이를 기르면서 마을의 所得増大를 圖謀한다. 이와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와같은 共同的 Public 性이 있는 事業을 共同으로 이룩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事業은 반드시 하여야 하고 政府는 財政支援을 한다 하는 內容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社會가 私有財産을 바탕으로 한 自由企業社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해치지 않는 範圍에서의 協業의 集團主義體制로 共同的 生産主義를 指向한다 하는 것이다.

或者는 우리 韓國사람은 公共精神이 없고 協同團結할 모른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 그것이 事實일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어디에 緣由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피어야 한다. 우리는 얼마나 公共的인 精神과 財産을 渴望하여 왔고 갈망하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社會倫理요 社會間接資本이다. 이와같은 것은 國民에게 出血이 가는것이 아니라 國民個人에게 利益을 준다. 왜 이와 같은 일을 反對하고 싫어 하겠는가? 우리 나라는 社會公共施設이 없기 때문에 各個人에 의하여 스스로 解決해야 하기 때문에 生活이 더 고되고 어려운것을 안다. 公共的 社會施設을 많이 設置하는 것만이 우리들의 極端的 個人主義를 拂拭하고 밝은 社會를 이룩할 수 있는 戰略일 뿐이다. 公共圖書館은 우리에게 公共의 場을 만들어 주고 새롭고 나은것을 提供하는 機能으로서 또 우리의 慰安을 주고 疲勞를 덜어 주는 文化福祉施設로서 또 젊은 青年의 새의사와 힘의 形成場으로써 그 德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새마을計劃에서 公共圖書館概念이 빠지고서는 이는 새마을일 수 없다. 이 公共圖書館은 經濟的 生産性 爲主의 새마을計劃을 보다 促進시키고 그 成果를 增加시킴에 있어 効果의일 수 있다. 社會開發과 그 發展에 公共圖書館이 어떻게 寄與했는가는 이미 歐美 先進國에서 實證한바 있고 그 中心機構으로써 發展하여 왔다. 維新課業을 特徵지어줄 새마을計劃에 있어 새마을의 文化센터로서의 公共圖書館計劃이 考慮되지 않았음은 甚히 遺憾스러운 政策的 缺如가 아닐 수 없다. 萬若에 1970年代의 政策的 체계가 새마을 建設로 農村의 近代化를 이룩한다면 1970年代야 말로 公共圖書館時代의 到來를 否認할 圖書館人은 아무도 없다. 더우기 今年에 마을 文庫振興會는 마을文庫 1萬個 突破의 뜻깊은 作業을 完遂하고 있고 이들이 公共圖書館과의 機能的 有機性을 살리며 助長시켜야 할 새로운 段階에 突入해 있는 것이다.

1973년에 있어 公共圖書館界에 있어 特記하여야 할 事實은 國立中央圖書館이 中心이 되어 全國의 10個 圖書館이 參加한 어린이 讀書學校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두가지 側面에서 그 意義를 附與해도 좋다. 첫째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國立中央圖書館이 中心이 되어 全公共圖書館이 參與한 事業이었다는 點 둘째 우리나라에서 最初로 公共圖書館이 그 放學동안의 學生들에게 어떤 奉仕를 할 수 있는가? 하는 學生들의 放學을 有益하게 보내는 積極的인 方案을 가지고 全國的으로 實施하였다는 點이다. 이것은 附次的으로 讀書指導에 對한 理論的, 實際的인 여러가지 새로운 問題와 境地를 提示해 주는 契機가 되었고 이 方面의 發展에 있어서의 새로운 出發이란 點에서도 意義는 至大하다. 한가지 아쉬운 點이 있다면 國立中央圖書館이 보다 合理的이고 緻密한 計劃과 豫算을 가지고 했었고 또 그 運營에 있어 地域의 特殊性과 自主性이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다. 어쨌든 이와같은 計劃에 國立中央圖書館은 보다 많은 리다침과 財政을 가지고 積極的으로 展開해 주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어쨌든 이는 今年度의 肯定的인 側面에서 特記할만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1973년에 있어서의 公共圖書館界의 큰 行事は 大田과 釜山에 있어서의 公共圖書館部會의 세미나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이 세미나는 公共圖書館部會가 春秋年 2회에 걸치어 主權하는 年例行事이지만 그래도 이것은 公共圖書館의 當面한 問題들을 論議하는 唯一한 모임이다. 大田세미나에서는 「生産的 圖書館人의 姿勢」로 李尙圭 國立中央圖書館長의 基調講演과 張一世 韓國開發院圖書館長의 「生活의 科學化와 圖書館人의 使命」 그리고 康津郡立圖書館長 姜禮權氏의 「農村地方의 公共圖書館計劃」 主題發表가 있었으며 11月の 釜山세미나에서는 梨大 金世翹 教授의 「讀書風土·改善을 爲한 圖書館人의 姿勢」와 延大 李炳熙 教授의 「現代社會와 公共圖書館의 役割」 및 釜山市立圖書館 司書課長 朴景愛氏의 「公共圖書館에 있어서의 資料選擇의 實際問題」를 가지고 發表와 討議가 있었다. 한가지 1973年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버려야 할 情性은 圖書館人의 모든 모임이 그렇지만 좀더 眞摯性을 가지고 스케주얼대로 參與하자는 것이다. 二日間의 會議과 세미나가 예정되었으면 一分에누리 없이 다 채우자는 것이다. 첫날만 參加하고는 몇대로 三十六方向하는 態度와 姿勢는 좀 버려야 할것 같다. 우리나라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와같은 일이 있겠는가? 筆者가 뉴질랜드의 圖書館大會에 두번 參席할 機會가 있었다. 그들의 會는 5日間으로 夜間까지 꼬박이다. 그동안 나왔다가 안나왔다 하는 사람이 없다. 出席簿를 부를 때처럼 座席이 -packed. 會議도 一分하나 에누리 없이 始作하고 끝맺는다.

女子들도 當當히 앞에 나가 國會議員들 처럼 發言을 하는데 筆者는 우리나라 圖書館人들의 모임을 생각하고 속으로 얼마나 부끄러운 생각을 갖었는지 모른다. 이와 같은 것은 이것으로 아듀하자.

釜山세미나의 討論에서 熱度를 올린것은 오랫동안 問題가 되어오던 公共圖書館의 無料入館問題이었다. 發表者이었던 金世翹教授는 우리나라의 公共圖書館의

金額의 多寡를 不問하고 入館料를 받는 것은 公共圖書館으로서의 本領을 逸脫하는 것이라고 前提하고 이는 國民에게 圖書館의 門을 높이는 일이며 「冊은 萬인의 것」이라는 우리의 一般的 綱領으로 봐 妥當치 않을 뿐만 아니라 西歐의 公共圖書館史와 現實로 볼 때 不可하다는 論據였다. 그러나 一部 圖書館長들의 意見은 그와 같은 事實을 否認치 않는다. 一金 10원의 入館料가 國民에게 事實상으로 圖書館의 門을 얼마나 높이는 일인가에 疑問을 提起하고 우리나라의 現實的 狀況으로 봐 圖書館의 自體秩序의 維持를 爲해서 不可避한 것으로 診斷을 하였다. 그리고 1973年의 重要한 이슈는 뭐니 뭐니해도 國立中央圖書館의 新築問題를 들지 않을 수 없다. 훌륭한 國立中央圖書館을 갖어야 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 圖書館人은 勿論 國民의 宿願이었다. 오래로부터 國立中央圖書館 및 文敎部에서 國立中央圖書館의 新築移轉問題를 놓고 計劃이 進行되고 있다는 것은 探聞된 바 있었던 일이며 아무런 公式發表가 없는 가운데 新聞의 報導는 現廳舍와 地의 畵界에의 賣渡說과 함께 汝矣島移轉說이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立場에 우리는 政府가 이 國立中央圖書館의 新築移轉問題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圖書館界, 文化界, 建築界等 各分野에서 公論과 諮問은 勿論 심지어 世界的인 圖書館專門家의 意見도 聽取함이 없이 무엇인가 進行되고 있다는 事實에 憤懣이 아닐 수 없으며 특히 우리 圖書館界 自體도 이에 對한 獨自的 計劃의 建議는 고사하고 세미나나 갖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圖書館界와 圖書館人의 無責任이 아닐 수 없다. 國立圖書館의 獨自的 理論의 概念은 1950年代 以後의 事實으로써 이에 對한 새로운 認識은 무엇보다도 重要한 것이다. 특히 새로이 進入하고 있는 工業化時代에 있어서의 國立圖書館의 役割은 보다 重大한 意味와 구실을 할 것은 여러 學者들에 依하여 指摘된 바 있으며 이번 高大亞細亞問題研究所에서 主管한 「韓國의 將來」 討議에 參席한 허만 칸 博士의 發表와 政府에의 建議事項에 留意할 必要가 있다. 國立圖書館의 新築移轉의 問題는 그렇게 單純한 問題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文明, 文化 및 社會的 諸變化和 挑戰에 對應하는 國家制度의 對應의 內容이기 때문에 傳統的 國立圖書館概念에 依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國立圖書館의 理念과 機能을 構成하고 이를 實際的 業務化를 期하는 새 國立圖書館의 創出과 이를 收容하는 物理的 建物의 創造인 것이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政治, 文化, 科學, 社會的 諸特殊性에 따른 適正性과 妥當性問題가 따르게 된다. 우리가 留意하여야 할 것은 濠州가 그랬고 土耳其가 그랬고 그 나라의 國立圖書館의 新築에 있어 世界的인 權威들로 부터 充分한 諮問을 받았다는 事實이다. 恒常 걱정하든 때에 1973年 9月 28日 中央日報社說 「國立中央圖書館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國立圖書館에 對한 올바른 밝은 洞察과 炯眼을 보여 준 것은 우리나라를 爲하여 至極히 多幸한 일이며 우리

圖書館人들이 마음 든든히 생각하는 터이다. 設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全建築界가 關心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圖書館이란 오늘날 하나의 裝置서비스이다. 새로운 裝置와 그 機能性問題는 先進國에만 우리는 安心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나라의 國立圖書館은 우리나라의 建築家에 依해서 될이 바람직하다는 命題를 否認하지 않는다. 이는 國內 建築界의 能力의 可能性과 그 過程으로서도 意味가 重大하다. 그래서 우리는 國家가 해마다 主催하는 國展 建築部門의 公募 主裁로서 定하여 國內의 智慧를 抽出하고 이를 展示할 必要가 있으며 이는 國展의 建築部門의 國家에의 參與와 올바른 方向의 設定을 爲해서도 一石二鳥가 아닐 수 없다고 본다. 國立中央圖書館의 新築에 關한限, 國家나 우리 圖書館界는 아무런 準備와 研究없이 1973年이 저문것은 不幸한 일이었다.

1973年에 있어 公共圖書館界의 기꺼운 일의 하나는 大邱市立圖書館의 發展이다. 이는 어찌 보던 우리나라의 地方自治團體의 長들이 公共圖書館의 發展이 그 地域發展에 있어 不可缺의 要素라고, 認識하기 始作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러나 우리나라 現實에 있어서는 그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特出한 善政이며 어려운 決定으로 높이 評價되어야 함이 몇 번이고 妥當하다. 大邱市立圖書館은 現市長 李圭貳氏는 赴任 以後 大邱市 行政에 있어서의 圖書館의 役割을 重視하고 圖書館의 育成과 그 業務 正常化에 많은 關心을 기울여 왔다. 첫째로 그는 1961年 以來 市敎育廳內의 借방살이를 안되겠다고 생각해 회로국민학교建物 (地 706坪, 建坪 258坪)에 565만원을 投入하여 524席의 獨立圖書館建物을 마련했고 아울러 市에서 運營하든 3個의 어린이會館을 圖書館에 移讓하고 50만원을 支援, 408席의 分館으로 運營體制를 整備하고 閱覽者가 더위속에서 애써 공부하는 것이 딱해 75만원을 지원 선풍기 施設을 갖추는 등 그 關心은 뜨겁고 고마운 일이었다. 그런데 大邱市 方法院의 新築移轉計劃이 結實됨을 契機로 그곳이 大邱市立圖書館으로 適地라 생각하고 地 3,003坪 建坪 2,505坪을 圖書館으로 使用토록 措置하고 引受後의 補修費로 5,000만원과 備品費 1,500만원 庭園造景費 1,500만원 등 都合 8,000만원을 擴保支援하게 된 것이다. 大田에서의 公共圖書館 세미나에서는 이와 같은 決定을 接해 듣고 모두 感激해 마지 않았으며 이분의 善政을 기리고 全體 圖書館人의 感謝를 위하여 文敎部長 官께 大邱市長의 表彰上申을 決議한 바 있었다. 이는 文敎部에서 이루어 저 지난 釜山세미나에서 表彰狀이 傳達되었지만 今年度에 있었던 기쁜일의 하나라 아니할 수 없다.

公共圖書館界엔 當面問題로서 所屬廳의 一元化問題等 許多한 難題가 많은 가운데 해를 넘기게 됨에 서운함을 아쉬워 하면서 癸丑年의 公共圖書館의 一年을 回顧한다.